

증권가 무료 수수료 전쟁

스마트폰 주식 거래 급증에 플랫폼 선점 경쟁 치열

평생 무료 내걸기도... 지나친 출혈 경쟁 역효과 우려

직장인 A(39)씨는 최근 B증권사에서 NH투자증권으로 주식 계좌를 옮겼다. NH투자증권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식 거래 수수료료를 평생 안 받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A씨는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거의 비슷해 주식수수료라도 아낄 생각에 증권사를 갈아탔다”며 “이제 돈을 주고 주식거래를 하면 바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이 급증하면서 모바일 주식 거래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A씨처럼 거래 증권사를 갈아타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도 증권사들이 일정 기간 수수료 무료를 내건 판촉을 펼치긴 했지만, 최근엔 수수료 무료 기간이 평생으로 길어지는 등 파격적인 시책들이 잇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선 얼마전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이 이 같은 영업 방식을 두고 선

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원가를 무시한 지나친 출혈 경쟁으로 결국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도 많았다.

이처럼 모바일 주식 거래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고객 유치전을 촉발한 곳은 대신증권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5월 휴먼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무료 기간 3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삼성증권은 곧바로 신규 고객까지 포함해 같은 혜택으로 맞붙을 뻔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도 무료 기간을 13년까지 늘리며 경쟁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이 기록도 NH투자증권이 수수료 평생 무료를 내걸면서 두 달 만에 깨졌다. 최근 NH투자증권의 모바일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나무’ 가입자는 하루 평균 800여명 수준으로 종전보다 평균 8배 가량 급증했다.

물론 NH투자증권으로서선 출혈이 불가피하다. NH투자증권은 1분기 644억원의 주식거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중 모

바일 수수료가 약 190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수수료 경쟁을 두고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소비자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영업 방식이 수수료 따먹이에서 자산 유치로 이동한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모바일 수수료 무료는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플랫폼 승자가 살아남을 것이라 위기감의 발로가 이 사태를 낚았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출혈 경쟁에 따른 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가를 무시하고 무조건 수수료를 공짜로 해준 증권사들은 결국 부족해진 수입을 메우려고 신용대출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소비자에게 유익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중 증권사 한 임원은 “주식수수료 무료는 결국 이를 미끼로 신용대출 등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최근 업계 안에서도 무료 경쟁이 지나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적잖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역업체 산이건설 ‘방재신기술’ 지정

교량의 구조적 강성 증가시켜 저항능력 탁월

행정안전부가 14일 지역건설업체인 산이건설이 신청한 ‘지점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2중 강상자형 거더 제작기술(FS공법)’을 방재신기술(제2017-10호)로 지정했다. 이 기술은 지점부에 외부 강상자와 내부 강상자를 제작하고 두 개의 강상자 사이에 콘크리트를 충전,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해 교량의 구조적 강성을 증가시킨 방재신기술이다.

기존 기술은 하천 횡단 교량의 경간장이 짧고, 여유 공간 부족으로 유속잡물이 걸려 급격한 통수능 저하로 인한 범람 및 유실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다. 새로운 기술은 지점부 충전으로 강성이 높아져 저항고, 장경 간 구조가 가능, 다리 밑 공간의 여유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홍수 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내·외부 강상자 사이에 스타드볼트와 타이볼트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한 공법으로, 보강재 설치 없이 부분적 굴절을 방지

해 내구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산이건설측의 설명이다.

산이건설 관계자는 “곡선교와 사교 등 거동이 불규칙적인 구조형상에 저항능력 탁월한 공법이며, 스타드볼트를 설치해 충전성을 향상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제2017-10호 방재신기술 FS공법(Filled Type Steel Box Girder Bridge)은 연상강을 횡단하는 신명단교(L=870m, B=21m), 낙동강변의 화명IC(L=1,140m, B=7.9~12.2m) 등 50여개 교량에 반영·시공해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방재신기술 지정 제도는 우수 방재기술의 개발·보급 및 방재기술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 기술을 도입해 개량한 기술로,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상의 亞 진출전략 설명회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홍콩무역발전국(HKTDC)과 공동으로 ‘홍콩·중국·아시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상의가 지역 기업인과 경제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무관세 지역인 홍콩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홍콩에서는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투자매력도가 상승하는 등 국내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최적지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벤자민 아우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지부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기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활용한 중국 본토 진출 전략을 비롯, 해외진출 거점으로서의 홍콩의 강점을 한국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350-5862.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개점 19주년

온·오프라인 통합 쇼핑...유통혁신 선도

온라인으로 상품 사고 백화점에서 물건 수령 앱으로 상품 안내·결제 지역 농·특산물 판로 지원 브랜드 육성 등 상생 노력



김정현 점장

“고객 성원에 힘입어 지난 19년 동안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차별화된 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8일 개점 19주년을 맞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김정현 점장은 14일 “지난 19년간 매장의 모든 환경을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했다. 그 결과 광주지역의 명소 백화점으로 신(新)유통문화를 선도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유통흐름의 변화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바뀌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며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소평 인프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역 백화점의 한계인 신규고객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전략에 발맞춰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합해 온·오프라인 매장에 관계없이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롯데 ‘옴니채널’(Omni channel)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주문 후 백화점에서 해당 상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스마트 픽’이 있다.

여기에 백화점 행사 및 상품안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한눈에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스마트쿠폰북’, 카카오톡과 연계해 실시간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엘로아이디’,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도 앱으로 결제 가능한 ‘엘페이’가 대표적인 서비스다.

특히, 철저한 지역 마케팅을 펼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백화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통산업 선



1998년 창립된 이래 18일로 개점 19년을 맞는 롯데백화점 광주점 전경.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진화와 유통문화의 리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고객중심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고객 요구가 반영된 매장구성,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구성, 단순한 선물이나 할인혜택 등 평범한 마케팅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문화이벤트 초대 등 문화적 소양을 활용해 창의력이 돋보이는 마케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상생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롯데대학 재단과 함께 지역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매학기 장학금을 증정하고 있다. 단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수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점 등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되면 매학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 돋보인다. 지금까지 총 173명에게 4억 6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 점장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고객중심경영에서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완도와 순창 등 지자체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특산물 특별전”을 제안해 행사를 열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기적인 현지 답사를 통한 우수 농가 발굴 및 입점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명절 선물세트에 있어 지역 특산물 비중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 있다.

김정현 점장은 “지난 19년간 롯데백화점을 찾아주고 아껴준 지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매장의 모든 환경을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광주지역 명소 백화점으로 신 유통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방문해 즐길 수 있는 공간,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사랑방을 만들고 싶다”며 “진정한 서비스,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글로벌 환경기치경영 등에 최선을 다하는 롯데백화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77.66 (+17.48)	금리 (국고채 3년) 1.74% (0.00)
↑ 코스닥 665.41 (+6.32)	↑ 환율 (USD) 1132.60원 (+4.10)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